

빛 바라기 : 빛 과잉 시대의 ‘빛과 그림자’

박 현 택 연필뮤지엄 관장

전등의 발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밝기’에 대한 갈망, ‘빛 바라기’는 역사적인 필연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빛 과잉의 늪에서 인간의 정서와 감성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고를 통해 빛의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빛이 있으라.”

신의 언명에 따라 비로소 세상이 시작되었다. 빛이 없다면 세상을 인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출범을 알리는 큐 사인! 빛은 곧 신의 강림이다.

■ 더 밝게, 더 명료하게

여섯 살 무렵, 차창 밖으로 처음 보았던 서울의 야경, 상가와 자동차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 어느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방문을 열고 나온 엄마가 20축(20W)짜리 백열등 소켓의 스위치를 ‘딸깍’ 켜다. 20축(燭)이란 촛불 20개의 밝기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엄마도 생경했지만 갑자기 밝아진 주변이 더 낯설었다. 그때까지 밤에 내가 경험했던 밝기는 1축(호롱불 1개)에 불과했지만,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나도 마침내 에디슨의 덕을 보게 되었다. 백열등은 호롱불이나 촛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밝다. 어찌다 60축짜리 전구를 켜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표면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내뿜는 빛이 너무 강해 눈이 부셨다. 그 백열등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데다가 수명까지 짧아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는 퇴출되었다. 대신 효율이 뛰어난 할로겐 조명이나 LED조명으로 대체되었다. 백열등의 파장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려앉는다면 LED등은

서늘한 빛 가루가 쉼 새 없이 쏟아지는 느낌이다. 요즘 보통 가정의 거실 조명은 100~150와트 정도다. 무려 촛불 150개가 켜진 정도의 밝기라니!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아름다움의 속성 중 하나가 ‘명료함’이라고 했다. 번다한 수다와 영성으로 충만했던 중세는 빛의 명료함에 매료되었다. 중세인들은 빛이나 광채, 찬란함을 신의 속성으로 찬미했으며 고딕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투과한 빛은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빛은 사물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선명한 사물은 명료하게 지각된다. 라틴어 Clāritas(명료함)는 밝음, 광채, 찬란함으로도 번역된다. 명료함, 밝음, 찬란함은 이형동체다. 물리적 영역에서의 ‘밝힘’은 정신적 영역에서는 ‘인식’에 해당된다. 인식이란 이성의 속성이며, 명료함이야말로 참이고(眞), 바람직하고(善), 보기에 좋은(美) 것이었다.

신학과 철학적 이상에서 계몽정신이 움트고, 계몽은 근대 서구문명의 동력이 되었다. 계몽(啓蒙)은 영어로 enlightenment인데,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다. 규범이나 관습, 가치관 등에 이성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몽은 속되게 말해 ‘깨몽(꿈 깨)’이다. 흐릿하고 컴컴한 미몽(어둠)에서 깨어나 명징하게 빛나는 이성(밝음)의 세계로 나오라는 정언명령이다. ‘이성’은 ‘빛’과 동격이다. 마침내 사람들의 믿음은 신에서 이성으로 옮겨갔으며, 계몽 프로그램은 빛(밝음)을 열망하게 했다.

■ 빛을 쫓다(走光性)

오래된 동굴벽화를 통해 등은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과학적인 전등의 역사는 불과한 세기 남짓할 뿐이다. 옛 선비들이 밤에는 달빛이나 반딧불에 의지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반딧불을 얼마나 잡아야 했을까? 일상의 불편과 욕구가 인간의 탐구정신을 만나 마침내 전등을 만들어 냈다. 더욱 밝고 효율적인 빛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오늘날에는 더없이 환하고 찬란한 밤을 누리고 있다.

인간은 사물이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에까지 확장하려는 욕망이 있다. 전등의 발명으로 빛을 관리할 수 있게 되자 밤도 낮처럼 써먹었다. 시간의 확장이다. 밝음이 어둠을 내쫓으면서 낮이 밤을 점령했다. 점령지는 정복자의 시스템을 따른다.

관공서와 은행, 백화점과 공연장, 학교와 병원, 도서관과 박물관, 대중교통 등은 모두 낮 시간에 맞춰 운영된다. 밤이 되면 상위층들은 휴식과 오락을 위해 집이나 유흥장소로 간다. 밤에 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하위층에 속한다. 낮에는 높은 직급인 의사가 하던 일을 밤에는 낮은 직급인 당직 인턴이나 간호사가 대행하며, 낮에는 정규직원이나 고객이 머물렀던 공간을 밤에는 알바생이나 청소부들이 드나든다. 낮이 중심이며 밤은 변방이다. 고로 밤은 낮보다 계급이 낮다.

바야흐로 ‘빛발치는’ 시대, ‘광빨나는’ 시절이다. 주택들은 모두 남향을 선호하며, TV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조명 없이는 연기하기 힘들다. 한강다리에서부터 도시의 구조물이나 쇼핑몰까지 모두 빛으로 샤워하고 있다. 고궁이나 문화기관에서도 조명 쇼와 영상효과를 앞세워 관객을 유혹한다. 빛의 질주는 매력적이다. 빛은 물체의 표면만이 아니라 허공에도 환상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관객들은 빛의 마법에 잠시 넋을 잃지만, 역사적인 장소나 유물에까지 너무 많은 빛이 투입되면 어떤 상실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

조명 빨로 한층 찬란해진 전시실의 청자나 백자, 불

상은 본래 어디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 침침한 벽을 뒤로 한 채, 뒤주나 사방탁자, 마루 같은 데에 놓여 있었겠지. 눈에 띄지도, 명료하지도 않은, 문틈이나 창호를 비집고 들어온 빛의 여운이 스민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환한지 않았으니 표면을 정확히 볼 수도 없었다. 시각적 체감만으로는 부족했으니 청각이나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이 보완해 주었을 것이다. 특정 감각의 독주는 다른 감각의 낙오를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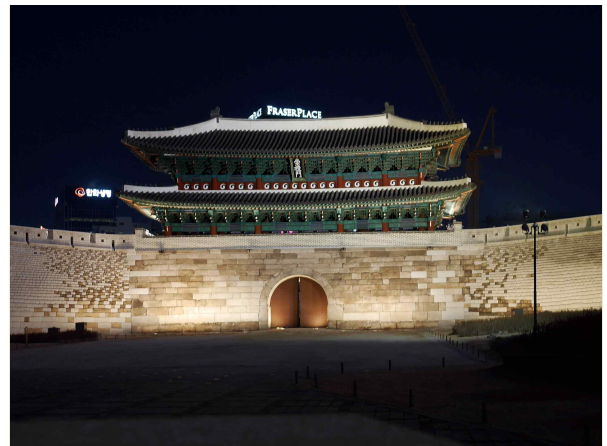


그림 1. 조명이 켜진 송례문

(사진 : 박현택)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사회를 “커뮤니케이션, 정보, 생산의 모든 시스템이 한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어 과잉 생명력, 과잉 전문화, 과잉 정보화, 과잉 의미화로 빠져든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다. 빛은 감각과 의식을 활성화시킨다. 각성 상태가 과도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 어둠의 몫

교토의 남선사(南禪寺)는 은각사(銀閣寺)와 더불어 일본 문화의 근간이라 할 동산문화(東山文化)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동산문화의 특징은 ‘한아(閑雅)’의 추구다. ‘한아’란 조용함과 아취를 말한다. 남선사는 정문과 법당, 방장(方丈, 고승의 처소)이 일직선을 이루는 구조다. 높이 20여 미터쯤 뒹직한 정문의 2층 누마

루에서 관광객들이 교토의 풍광을 전망한다.

늦은 오후의 남선사, 정문의 위용이 당당하다. 누가 일본 문화의 특성을 경박단소(輕薄短小)라고 했던가? 남선사의 정문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간다. 시나브로 땅거미가 깔렸다. 야경을 찍으려 카메라를 만지작대는데, 이윽고 남선사가 어둠에 잠겼다. “곧 경관 조명이 켜지겠지”라는 생각에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사찰의 정문에 조명도 안하다니...?”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의 흐릿한 실루엣이라도 찍으려 조리개를 맞추었다. 그런데 어두워지고 나니 이 문이 더욱 존재감을 드러냈다. 신화나 전설에서처럼 정체가 모호한, 무지막지하게 덩치 큰 짐승이 떡 버티고 앉아 있는 듯 한 환영이었다. 가까이 다가서기 두려운.



그림 2. 교토 남선사의 낮(上)과 밤(下)

(사진 : 박현택)

이후 일본 작가의 《음예공간예찬(陰翳禮讚)》을 접하게 됐는데, ‘음예’란 그늘도 그림자도 아닌 어둑어둑한 모습을 일컫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어둠이 퇴적한 것이라면 그들(서양인)이 좋아하는 것은 태양광선이 서로 겹친 색깔이다. ... 은그릇이나 놋쇠그릇에서도 우리들은 녹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라고 하여 반짝반짝하게 닦는다. ... 그 어둑어둑한 광선속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하게 빛나는 장지의 반사를 받으면서 명상에 잠기고, 또한 창밖 정원의 경치를 바라보는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일본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였던 1930년대 초반,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는 동양(일본) 고유의 정취와 감성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서구 문명이 ‘빛, 광택, 명료함’에 열광했다면 동양은 ‘어둑함, 얼룩, 흐릿함’에 가치를 두었다고 보았다. 현대 생활이 발전하는 문명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난폭한 빛의 범람으로 은밀하게 깃들어 있던 ‘음예’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관능적인 몸매를 부각시키려면 백사장 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빛도 괜찮다. 즉물적인 명랑함을 드러내기엔 직사광선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물체 자체가 아니라 물체와 물체 사이의 틈, 물체의 얼룩이나 영혼은 희미한 반사광 속에서 비로소 신비로워진다. 동물은 몸이 다치거나 허약해지면 동굴이나 동지로 들어간다. 어둡고 고요하다. 밝고 소란하고 분주한 곳에서는 안식이 불가능하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원조곰탕집과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이 도시인의 밤과 잠을 빼앗아갔다. 밤은 자연법칙 상 쉬는 시간이며, 모든 치료의 공통분모는 잠이다.

■ 별이 빛나는 밤

더 밝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 아직까지도 빛이나 조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조명기구의 모양, 전기·전자적 측면, 효율성에 맞추어지고 있다. 빛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할 때다. 바람직한 조명디자인이란 단편적인 조명기구가 아니라 ‘공간에서의 빛의 계획’을 말한다.

미국 유타 주는 2007년, 국립내추럴브리지스천연 기념물(Natural Bridges National Monument) 일대를 어두운 하늘 공원으로 지정했다. 밤이 되면 수 천 개의 별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를 만날 수 있다.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에 대한 관심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어둠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무조건 어둡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불을 밝히지 말고 어둠의 고유한 영토를 지키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버킷리스트에 몽골의 푸른 초원을 꼽는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은하수를 본 게 언제였던가?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이미 우리는 <별 헤는 밤>이나 <The Starry Night(별이 빛나는 밤)>에서 멀어졌다. 조명 쇼와 전광판, 네온사인, TV, 모니터,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을 가까이 할수록 별 볼일 없어진다. 별이 사라지면 추억도, 쓸쓸함도, 동경도, 시도, 그림도….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택(2022). “빛 바라기 : 빛 과잉 시대의 ‘빛과 그림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현택 wanderman00@naver.com
ACKIS브리핑 작성 2022.09.27.

#조명 #빛 #어둠 #도시 #현대 #문명 #빛의과잉